
『서장(書狀)』에 나타난 낭만적 거짓과 선적(禪的) 진실

박재현 (동명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대혜종고와 『서장(書狀)』
- III. 욕망이론으로 읽는 편지글
 - 1. 손여(孫與)의 모방 욕망
 - 2. 종직각(宗直閣)의 모방 욕망
 - 3. 증천유(曾天遊)의 모방 욕망
- IV. 나가는 말: 욕망을 대하는 선적 진실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철학, 문학, 종교학, 불교학 등의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1923~2015)의 욕망이론을 분석 도구로 하여, 송대 선사(禪師)인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주고받은 편지글 모음집인 『서장(書狀)』에 실린 편지글 가운데 손여(孫與), 종직각(宗直閣), 증천유(曾天遊) 등 3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대혜는 이들의 편지에서 각각 불경 번역을 과시하며 선에 대한 안목과 경지를 인정받으려는 욕망, 감정을 애써 억누르거나 떨쳐내려고 애쓰는 욕망, 출가자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들춰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모두 모방 욕망에 지나지 않아서 선 수행이나 깨달음과는 본질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키워드: 대혜종고, 르네 지라르, 모방욕망, 낭만적 거짓, 서장, 선불교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선(禪)에서 욕망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1923~2015)의 욕망이론에 의거하여 고찰한 것이다. 대개의 종교가 그러하듯이 불교 역시 욕망을 제어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다. 인도전통의 초기불교에서부터 집착과 욕망은 고(苦)를 양산하고 윤회를 가속하여 중생이 니르바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해왔다. 탐진치(貪瞋癡)를 삼독(三毒)으로 규정하고 욕망 제어를 수행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간주해온 것이 때문이다. 욕망이 실체적이든 비실체적이든 간에 인도 전통 불교는 욕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욕망에 대한 선의 관점은 인도 전통의 불교와는 상당히 다르다. 어쩌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당화해온 동아시아 사회에서 욕망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치 사회적 역할 자체를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욕망은 무작정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농경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인도불교 전통이 동아시아에 이르러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형태로 용인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 선에서는 욕망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주인공(主人公), 불성(佛性), 본심(本心), 일심(一心) 등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에서는 마음의 본래 완결성 내지는 순수성을 현재화 하는데 주력한다. 마음은 본래 완결하고 순수한데 비해 욕망은 비본래적인 것이니, 본래의 것을 구현하기만 하면 본래적이지 않았던 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선은 인도전통의 불교와는 다르게 욕망을 대했다.

욕망 혹은 탐욕이라는 말귀는 매우 윤리적이고 감각적 본능을 연상시킨다. 인도 불교전통에서는 욕망의 원인으로 무명(無明)을 지적한다. 그런데 무명의 정체가 모호하다. 무명이라는 개념 앞에 근본(根本)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 근본이라는 말은 너무나 본래적이어서 규명 불가능하니 그냥 그런 게 있을 줄 알면 된다는 말처럼 보인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도 “홀연히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일러 무명이라 한다.¹고 적고 있을 뿐이다. 문득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상이 바로 무명이라는 설명은 현상론적 설명에 그쳐서, 욕망의 원인에 대한 존재론적 규명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프로이트는 모든 욕망은 결핍된 주체의 리비도(libido)적인 성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리비도는 불교에서 무명의 위치와 비슷해 보인다. 욕망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리비도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현상으로 드러난 욕망과 그것을 리비도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행위는 의식의 영역이다. 이 둘 사이의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검증불가능하다. 그래서 욕망의 원인이 리비도라는 설명은, 전제를 가정한 설명방식일 뿐이며,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설명이다.

욕망의 원인을 무명이라고 하든 리비도라고 하든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첫째, 욕망을 본래적이고 선천적이며 자내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여기서 외부의 대상은 본래의 욕망이 현상화 되는 계기(trigger)로 작동할 뿐이다. 둘째, 욕망의 원인과 욕망이 발휘되는 방향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무명이나 리비도가 어떤 욕망 현상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거나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욕망 현상을 통해 욕망 원인을 귀납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꿈을 분석해서 꿈꾼 자의 무의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욕망 원인을 분석해서 장차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욕망 현상은 엄연히 존재하고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불교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이 설명을 위해 선에서 동원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습기(習氣)이다. 이것은 일종의 관성이론인데, 마음이 본래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일어나는 까닭은 오래전부터 잘못된 심리적 습관 내지는 버릇 탓이라는 소박한 설명이다. 그런데 습기이론을 통해서도 욕망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는 못한다. 습기이론 역시 현상화 된 욕망에 대한 사후 설명일 뿐이다. 습관이거나 버릇이 현상화 되지 않은 이상 어떤 버릇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

1. 『大乘起信論』, ABC, K0616v17, 617a11-12. “忽然念起名爲無明.”

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욕망과 관련된 불교나 프로이트의 설명 혹은 습기론까지도, 욕망이란 본래 그냥 그런 것이니 그런 줄 알면 된다는 말 이상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다만 귀납적으로 추정되거나 짐작될 수 있을 뿐인데, 그래서 욕망론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불미스러움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데 그치고 만다고 볼 수 있다. 또 선에서 전제하는 완결되고 순수한 마음에 어째서 욕망 같이 샷된 것이 애초에 발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궁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욕망을 대하는 선의 태도를 전통 불교이론이 아닌 현대 인문학이라는 열린 지평 위에서 새삼스레 살펴보고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르네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분석도구로 하여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선, 또 그 선을 대표하는 간화선의 종장으로 알려져 있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편지글을 중심으로 편지 속에 내포된 욕망의 정체와 그것을 꿰뚫어 보는 선사의 통찰과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혜가 주고 받은 편지글은 『서장(書狀)』이라는 제명(題名)으로 엮여져서 조선후기부터 한국불교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목 가운데 하나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널리 학습되고 있다. 여기에는 총 62편의 편지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선적(禪籍)들과 달리 추상적인 이론이나 애매모호한 선문답을 나열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절실하게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어 선 특히 간화선을 연구하는데 실제적으로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된다.

『서장』에 남아있는 대혜의 답장을 보면, 그는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하고 있으면서 발설하지 않거나 혹은 의식하고 있지도 못하는 욕망의 정체를 꿰뚫어본다. 그리고 그 욕망이 르네 지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낭만적 거짓(mensonge romantique)’에서 비롯된 것임을 짚어주고, 상대방이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장』에 실린 몇 편의 편지로 이러한 과정을 밝혀내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종교라는 특수성

과 학문영역간의 경계로 인해 많이 낮설어 보일 수밖에 없는 선이, 인문학이라는 넓은 지평에서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대혜종고와 『서장(書狀)』

대혜종고는 중국선종사에서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의 뒤를 이어 간화선을 확립한 대표적인 선사로서, 고려와 조선 그리고 현대 한국의 불교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인물이다. 그는 송대 당시 사대부들과도 폭넓게 교류했고, 특히 정치적으로 한 계파를 형성한 주전파(主戰派)의 주요 인물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이런 까닭으로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15년 동안이나 유배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는 유배기간 동안에 선 수행자는 물론이고 관료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글을 묶은 책이 『서장』이다. 총 65편의 편지글에서 그는 자신에게 찾아와 직접 상담을 청하지 못하고, 편지로 질문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장했다.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나 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인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실존적인 고민거리나 신변 문제에 대한 것까지 담고 있다.

불교 전통에서는 경전류와 논서류를 비롯해서 그 보다 더 많은 선적(禪籍)이 전한다. 하지만 『서장』과 같은 형태와 내용을 취하고 있는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서장』이 보여주고 있는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은 간화선 수행이 실제로 어떤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불교나 선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과 처방내용을 담고 있어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접목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런데 대혜의 편지글은 어렵다. 대혜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박식한 사람이다. 게다가 천년도 더된 옛 글인데다 선문의 안쪽에서만 쓰이는 말귀가 많아 낮설고 당황스럽다. 이런 말귀들이 어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장에도 몇 번씩이나 나온다. 그래서 편지의 말귀를 놓치지 않고 다 따라가려고 하

면 지레 지쳐버린다. 당시 사람들끼리는 흘러듯이 말해도 서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상대가 말을 하다가 관둬도 숨은 말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옛말 사전을 옆에 두고 한 자 한 자 꺾어 맞춰야 겨우 알아볼 수 있다.

국내 시중에서 여러 종류의 『서장』 우리말 번역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² 하지만 옛 한자어 원문을 옮기는 작업에 진력하다보니, 말의 풍경은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문의 안쪽에서 오래전부터 쓰이던 어투는 번역에서도 어찌지 못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겨우 옮겨 적어 놓았을 뿐이다. 이 논문에서는 편지글 자체의 온전한 번역이나 심화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선사상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서구 사상가의 욕망이론을 방법론적 도구로 취하여 편지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인 바, 인문학 분야 연구자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고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용어와 선어(禪語)를 최대한 풀어서 번역하려고 한다.

『서장』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담은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인간의 고통이 삼독에서 비롯된다는 전통 불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이들 고민의 내용을 담은 편지와 그에 대한 대혜의 답장에는 인간 보편의 욕망이 비롯되는 지점과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장』의 편지글을 읽어 내는데 르네 지라르의 욕망이론은 유용하다.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은 다방면에 걸쳐서 인간 현실에 대한 설명능력을 인정받고 있”³기 때문이다.

『서장』에는 욕망이론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편지글이 몇 편 보인다. 대개 역경을 딛고 사회적으로 성취한 바가 있어 자신감에 차 있거나 자부심이 강한 인물들이 보낸 편지이다. 특히 정치 사회적으로 출세한 이들로서 사회적 출세에

2. 대혜 『서장』의 우리말 번역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김탄허 역, 『서장』, 교림, 1994; 智象 주해, 『서장』, 불광출판부, 1998; 김태완 역주, 『대혜서장: 참선은 이런 것이다』, 침묵의향기, 2018; 원순 역, 『禪 스승의 편지』, 법공양, 2010; 진재강 역주, 『書狀: 대혜스님의 선수행 편지 모음집』, 운주사, 2004; 巨英 역주, 『서장』, 수덕사승가대학, 1998. 이외에도 정식 출판물이 아닌 것과 발행처가 불분명한 것들 등 다양한 형태의 문헌들이 존재한다.

3.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이론과 새로운 심리학」, 『불어불문학연구』 107, 2016, 33쪽. “르네 지라르는 타인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모방적 욕망’이라 부른다. … 지라르에 의하면 바로 이 모방적 욕망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인 폭력이 나온다.”

덧붙여 정신적 혹은 종교적 성취에 대한 욕망까지 가지고 선문의 안쪽을 엿보는 이들이 보낸 편지가 대개 그러하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이후 대혜가 취하는 태도에는 일관된 패턴이 보인다. 그는 이들의 욕망에서 모방을 읽어낸다. 그는 편지에 내포된 욕망을 간파한 후 그 욕망의 정체가 모방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고 그 내용을 답장으로 보냄으로써 편지를 보낸 이가 스스로 되돌아오고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Ⅲ. 욕망이론으로 읽는 편지글

1. 손여(孫與)의 모방 욕망

손여(孫與)는 지현(知縣) 벼슬에 있던 사람이었다. 중국 송나라와 청나라 때의 지방 행정구역인 현(縣)의 수장(首長)이었다. 사대부로서 학문적 역량도 상당했을 것이고 지방 정부 최고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자부심도 강했을 것이다. 그는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던 모양인데, 그가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금강경(金剛經)』 여러 판본을 자신이 직접 가다듬고 다시 고쳐 쓴 것을 편지와 함께 대혜에게 보냈다. 이때가 1158년으로 대혜의 나이 70세 되던 해인데 장기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임안(臨安) 경산사(徑山寺)에 주석하고 있을 때라고 알려져 있다.

손여가 오래전부터 대혜와 안면이 있었던 같지는 않다. 그런데 유학(儒學)에 정통한 고위 관리가 이름난 고승들의 『금강경』 번역을 두고, “참됨을 잃고 근본 진실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문장과 글귀를 더하거나 덜어내어 부처의 뜻에 위배된다”⁴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교정하여 새로운 『금강경』 판본을 완성했으니 살펴보라고 불쑥 대혜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의 편지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나고, 기존의 번역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엿보인다.

손여는 영민한 인물이었다는 것 같다. 『금강경』을 보고 과감하게 자신이 다시 수정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편지와 함께 대혜에게 보낼 만큼

4. 「答孫知縣」, 大慧普覺禪師語錄, T.47, 940a. “左右詆諸聖師翻譯失真° 而汨亂本真° 文句減° 違背佛意°”

또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대혜는 답장을 통해 답답하게 예의를 차리면서도 손여가 품고 있는 낭만적 욕망을 빠짐없이 지적했다. 대혜는 칭송하거나 꾸짖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손여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욕망의 정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했다. 대혜의 답장 편지글은 다음과 같다.

편지로 보내주신 직접 수정한 『금강경』을 기쁜 마음에 받아보았습니다. 근래 사대부가 좌우에 즐비하지만 그대와 같이 불경에 마음을 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불경에서 나름의 의미를 얻지 못했다면 이처럼 믿어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불경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깊고 오묘한 뜻을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오래 되새겨보니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범본(梵本)이 없는데도 자기 혼자 견해를 가지고 성인의 뜻을 없애고 있으니, 원인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招因帶果]이며 성인의 가르침을 휘방 놓아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 만한 사람들이 그대의 『금강경』을 보게 되면, 그대가 불가의 여러 스승들에게 했던 지적이 똑같이 그대에게도 들이닥칠 것이니 걱정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귀어 얹는데 말이 깊으면 허물을 부르는 길이다.” 나와 그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대가 이 경전으로 나에게 인증(認證) 받고 만세에 유포하여 중생들에게 부처의 종자를 심으려하니 이것은 제일로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적합한 인물로 생각하고, 진실한 소식으로 형식을 벗어나기를 기대하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번역함에 있어서 말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다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어(梵語)에 비추어 증명하는 사람도 있으며, 뜻을 바로 잡는데 치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말과 범어를 서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성인의 뜻을 잘못 번역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범본을 얻어 보지 못했으면서도 함부로 수정해 놓고서는 뒷사람들에게 자세히 믿으라고 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그대에게 자신과 남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의 이런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더라도, 그대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해서 끝내 경의 내용을 바꾸고 고치려 한다면, 그렇게 출간하는 것은 온전히 그대의 몫입니다. 나는 그저 따라서 기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개서는 이미 일부러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경(經)으로 인가(印可)를 구하였습니다. 비록 서로 안면은 없지만 불법(佛法)이 가깝기에 나도 모르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 거슬렀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공의 진정성을 알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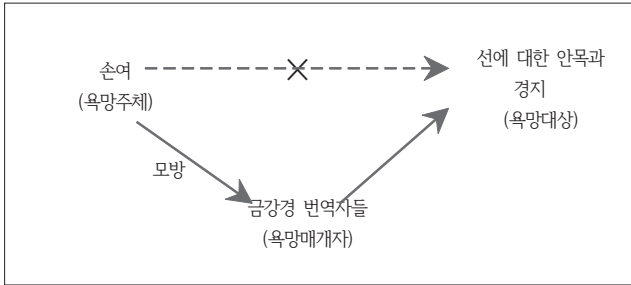
대혜가 들추어낸 손여의 첫 번째 욕망은 유학자인 고위 관리가 『금강경』을 번역한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이것이 모방의 욕망임을 지적한다. 늘 자신감에 차 있던 손여는 자신이 유학을 넘어 선에 대한 안목과 경지에 대해서도 자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의 소의경전(所依經典) 즉 선의 이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과 그 경전의 번역과 해석으로 명망이 높은 고승들을 욕망매개자로 삼았다. 손여에게 고승들은 르네 지라르의 용어로 하면 내적매개가 된다.⁶

손여는 자신도 얼마든지 고승들 못지않게 금강경을 번역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승들처럼 금강경 번역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따라하는 정도의 욕망에 그치지 않았다. 선에 대한 안목과 경지가 그들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쟁적 욕망이 작동한다.

대혜는 손여가 『금강경』을 수정 개편한 것이 큰 깨달음의 자연스런 귀결이 아니라, 남들이 자신의 안목과 경지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금강경』 번역으로 명망이 높은 고승들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타발적 욕망이라는 점을 들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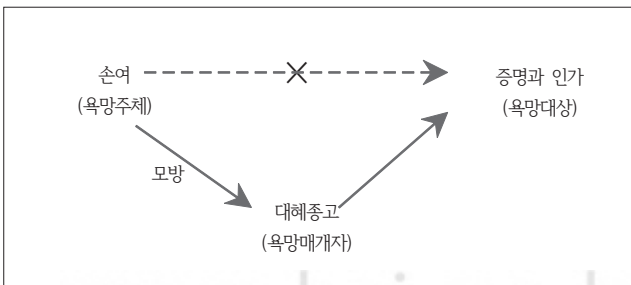
5. 『答孫知縣』, 大慧普覺禪師語錄, T.47, 940a-41a. “蒙以所修金剛經相示° 幸得隨喜一遍° 近世士大夫° 肯如左右留心° 典者° 實爲希有° 不得意趣° 則不能如是信得及° 不具看經眼° 則不能窺測經中深妙之義° 眞火中蓮也° 詳味久之° 不能無疑耳° … 無梵本° 便以臆見° 削聖意° 則且未論招因帶果° 誇聖° 墮無間獄° 恐有識者見之° 却如左右檢點諸師之過° 還著於本人矣° 古人有言° 交淺而言1深° 招尤之道也° 某與左右素昧平生° 左右以此經求印證° 欲流布萬世於衆生界中種佛種子° 此是第一等好事° 而又以某爲箇中人° 以箇中消息° 相期於形器之外° 故不敢不上稟° … 翻譯場有譯語者° 有譯義者° 有潤文者° 有證梵語者° 有正義者° 有唐梵相校者° 而左右° 以爲錯譯聖意° 左右° 不得梵本° 便妄加° 削° 却要2後人諦信° 不亦難乎° … 左右若無人我° 定以妙喜之言爲至誠° 不必泥在古今一大錯° 上若執己見爲是° 決欲改削要一切人唾罵° 一任° 版印行° 妙喜也只得隨喜° 歎而已° 公° 得得遣人° 以經來求印可° 雖不相識° 以法爲親° 故不覺切切坦坦相觸忤° 見公至誠° 所以更不留情° ”

6. 지라르는 매개를 둘로 나누는데, '외적 매개(médiation externe)'와 '내적 매개(médiation interne)'가 그것이다. 외적 매개는 매개자가 추종자 밖에 있는데다가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매개이여서 욕망주체는 그 매개자를 따라하려 할 뿐이다. 내적 매개는 욕망 주체와 가까이 있는 매개이다. 여기서 욕망 매개자는 욕망 주체에게 경쟁자가 된다. 이찬수, 「모방 욕망, 소수자 재생산과 그 극복의 동력: 르네 지라르의 폭력 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8-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216~217쪽 참조.



손여의 행동에는 또 하나의 욕망이 발견된다. 평소에 안면이나 친분이 있지도 않았던 대혜에게 수정 개편한 『금강경』을 불쑥 보내온 행위와 관련된 욕망이다. 여기서 손여는 대혜를 매개로 삼아 자신의 안목과 경지에 대한 인가(印可)를 욕망했다. 선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안목과 경지를 인가받는 전통이 있는데 그 것을 일러 법맥(法脈) 혹은 전등(傳燈)이라고 하며 그 상징물로 흔히 의발(衣鉢)을 건네준다.

손여는 선 전통에서처럼 자신의 『금강경』 번역과 선에 대한 안목과 경지를 인가받으려고 욕망했다. 그리고 그 매개자로 대혜를 떠올렸을 텐데, 르네 지라르의 용어로 하면 이때 대혜는 손여에게 외적매개가 된다. 외적 매개로서의 매개자는 욕망주체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욕망의 대상을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욕망주체와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으며, 욕망주체를 매개자를 따라하려고 애쓸 뿐이다. 손여는 자신을 증명하고 인가해줄 수 있는 인물로 대혜를 상정했던 것이다.



대혜는 손여의 첫 번째 욕망을 들춰냄으로써 선을 통해 어떤 이치를 깨닫고 그것이 흘러넘쳐 나와 『금강경』 개편 번역 작업까지 돌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되돌아 보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욕망을 들춰냄으로써 손여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낭만적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 손여는 『금강경』을 수정 번역한 이후에도 자신의 안목과 경지를 비자발적인 외부의 어떤 기준을 통해 증명하고 인가받으려고 욕망했다. 대혜는 답장을 통해 손여에게 감추어진 욕망의 모방성을 들춰냈다. 가슴 속 욕망의 정체를 들켰거나 알아차리게 된 당사자는 놀랍거나 부끄러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라질 것이었다.

2. 종직각(宗直閣)의 모방 욕망

다음의 편지는 대혜가 56세 되던 해인 1144년 형주(衡州) 귀양처에 있을 때 종직각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답장한 글이다. 『서장』에서는 대혜와 편지를 주고 받은 상대를 증시랑(曾侍郎), 진교수(陳敎授)처럼 대개 관직명으로 적고 있지만, 관직명에 본래 이름도 함께 적었다. 그런데 종직각은 이름이 미상(未詳)이다. 직각은 관직명인데 직비각(直秘閣)의 관리라는 뜻이다.

해인사판 사기(私記)에 의하면, 송나라 태종이 용문(龍門) 동북쪽에 소문관(昭文館), 집현관(集賢館), 사관(史館) 등 세 관(館)을 세우고 만여 권의 책을 보관하였으며 별도로 서고를 지어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였으므로 비각(秘閣)이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을 참고하면 종직각은 조선으로 치면 규장각 비슷한 곳에서 근무하던 관리로 볼 수 있겠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관리로 있으면서도 구자무불성화(拘子無佛性話) 화두 수행에 전념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혜는 종직각의 욕망을 읽어내고 있다.

보내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일에 얽매어 매일같이 구별 짓는 마음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부처의 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적으셨습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깨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가지고 감정의 티끌을 털어낸다(破除情塵)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발밑을 살펴보십시오. 구별 짓는 마음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쁜 일상 속에 있다면서

어떻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 하나 가지고 감정의 티끌을 다 털어낸다는 얘깁니까. 누가 그렇게 털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일찍이 '중생들이 전도되어 자신을 잃고 외물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니 [본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내 바깥의 것들은 본래 아무 구별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니 [본래 구별된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구별 짓는 겁니다.

매일같이 구별 짓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도 또 부처의 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데, 부처의 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면 매일같이 구별 짓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구별 짓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부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집어 들고 하나는 버리고자 하시니 어찌 기대할 것이 있었습니까.

이마가 널찍한 백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는 군중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 잡는 칼을 내던지고는 선 자리에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오랫동안 속 태우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문득 쓸데없이 구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별되는 것을 두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드십시오.

감정의 티끌을 털어버리려는 것도 부질없고, 생각을 지어내려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구별하는 것도 부질없고,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그저 단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만 바라보십시오. '없다'는 한 글자를 드는 것 외에 깨달음이랄지 그딴 것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깨달음이랄지 그딴 것을 생각하게 되면 곧 세상 모든 것이 구별됩니다. 부처의 법이라는 생각도 구별이고, 감정의 티끌이라는 생각도 구별입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것도 구별이고, [그 화두가] 끊기는 것도 구별이고, 끊기지 않는 것 또한 구별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 몸과 마음이 혼란스럽고 편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구별입니다. 온갖 구별됨이 있음을 아는 것 또한 구별입니다. 이 병을 낫고자 한다면 '없다'는 한 글자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마 넓은 백정이 소 잡는 칼을 버리고는 "내가 곧 천불과 한가지다"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이래서 말이 된다가나 저래서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다시 대상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칼에 내리쳐야합니다. 앞뒤를 봐 재서는 안 됩니다. 앞뒤를 봐 재면 또한 구별일 뿐입니다. ...

화두를 들 때는 왕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저 모든 행동거지를 하면서도 [화두 드는 것] 그만두는 일만 없게 하십시오. 회로에락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별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화두를] 들고 또 들며, 보고 또 보다보면 논리도 사라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서 마음에 애타고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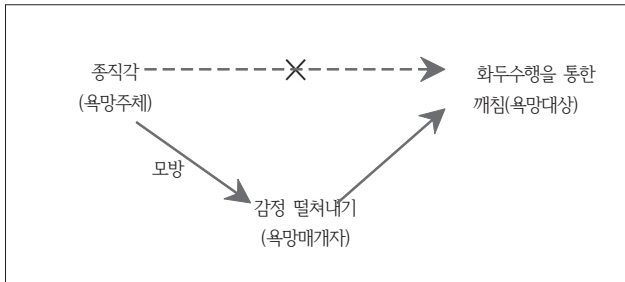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그만 뒤야겠다는 생각을 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부처나 조사가 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

일상 속에서 구별 짓는 마음을 꺾으면서도 어쩐지 이제 별로 버겁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일을 겁니다. 그 때가 바로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힘을 받는 상황에서는 젓 먹을 힘까지 다 빼야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샷된 가르침이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가지고 버티기만 하십시오. 버티고 또 버티다보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가 문득 잠에서 깬 듯도 싶고, 연꽃이 핀 듯도 싶고, 해가 구름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듯도 싶을 겁니다. 저절로 [깨달음의] 한 조각이 이루진 것입니다.⁷

서장의 내용을 번역 혹은 설명 해 놓은 글을 살펴보면, 종직각에게 답장한 위의 편지글의 핵심을 “무자 화두를 간하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불교학이나 선학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고, 필자가 보기에 이 편지의 핵심은 “생각을 털어내려고 하지 마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싶다. 대혜는 화두 수행에 전념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종직각의 욕망을 알아챘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구별하여 애써 떨쳐내려고 하는 종직각의 욕망을 지적했다. 화두 일념을 놓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떨쳐내는게 부처의 법이며 깨달음의 길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 욕망을 지적한

7. 『答宗直閣』, 大慧普覺禪師語錄, T47, 933a-c. “示諭應「日」差別境界 未嘗不在佛法中 又於日用動容之間 以狗子無佛性話 破除情塵 若作如是工夫 恐卒未得悟入 請於脚跟下照顧 差別境界從甚「處」起 動容周旋之間 如何以狗子無佛性話 破除情塵 能知破除情塵者 又是阿誰 佛不云乎 衆生 倒迷已逐物 物本無自性 迷己者自逐之耳 境界本無差別 迷己者自差別耳 「日」差別境界 又在佛法中 「在佛法中」則非差別境界 「在差別境界中」則非佛法矣 拈一放一 有甚了期 廣額屠兒在涅槃會上 放下屠刀立地便成佛 豈有許多切切怛怛來 日用應「處」纔覺「差別境界時」但只就差別處 舉狗子無佛性話 不用作破除想 不用作情塵想 不用作差別想 不用作佛法想 但只看狗子無佛性話 但只舉箇無字 亦不用存心等悟 若存心等悟 則境界也差別 佛法也差別 情塵也差別 狗子無佛性話也差別 間斷處也差別 無間斷處也差別 遭情塵惑亂身心不安樂處也差別 能知許多差別底亦差別 若要除此病 但只看箇無字 但只看 廣額屠兒放下屠刀云 我是千佛一數 是實是「若作「實商量」又打入差別境界上去也 不如一刀兩段 不得念後思前 念後思前則又差別矣. ... 舉話時都不用作許多伎倆 但行住坐臥處勿令間斷 喜怒哀樂處莫生分別 舉來舉去 看來看去 覺得沒理路沒滋味心頭熱悶時 便是當人放身命處也 取記取取 莫見如此境界便退心 如此境界正是成佛作祖底消息也. ... 日用四威儀中 「差別境界」覺得省力時 便是得力處也 得力處極省力 若用一毫毛氣力支定是邪法 非佛法也 但辦取長遠心 與狗子無佛性話 斯崖崖來崖去 心無所之忽然如睡夢覺 如蓮華開 如披雲見日 到恁時自然成一片矣.”

것이다.



종직각은 화두를 들어 감정의 티끌을 털어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듣거나 배웠을 것이다. 여기서 육망대상은 ‘화두 수행을 통한 깨침’이고 중개자는 ‘감정 떨쳐내기’가 된다. 그런데 “중개자의 특권은 육망된 대상에게 전달되어 그 대상에게 환상에 불과한 가치를 부여한다. 삼각형의 욕망은 대상을 변형시키는 욕망이다.”⁸ 그래서 종직각은 ‘감정 떨쳐내기=깨침’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욕망이 내포된 종직각의 편지를 받은 대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끝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답장의 첫머리에서부터 강하게 지적했다. 대혜의 어조는 너무 단호해서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다.

감정의 티끌을 털어내는 것은 일견 깨달음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깨달음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는 생활인이 감정의 티끌을 털어내겠다고 욕망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매일 같이 깨침을 위한 화두 수행을 하려는 마음과 감정의 티끌이 남은 마음을 이리저로 저리저면서 구별하고 골라내는 게 무슨 부처님 법이겠느냐고 지적한다.

대혜는 이마 넓은 백정을 예로 들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구별할 줄도, 구별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백정은 당연히 감정 떨쳐내기를 따라할 줄도 몰랐다. 백정은 “내가 곧 천불과 한가지다”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이는 깨달

8.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2, 59쪽.

음을 모방하지 않고 앞뒤 봐 재지도 않고 깨달음으로 곧장 나아가는 태도이다. 그래서 백정은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증천유(曾天遊)의 모방 욕망

증천유는 『서장』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가 대혜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과 대혜가 그에게 답한 편지가 여섯 통이 『서장』에 실려 있다. 적어도 여섯 번 이상 서신이 오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혜의 나이 46세 즈음되던 1134년에 양서(洋嶼)에 있을 때 오간 편지들이다. 증천유는 시랑 벼슬에 있던 사람인데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으며, 서로 오간 편지를 보면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증천유가 보낸 편지 내용이 남아있는 첫 번째 편지만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증천유가 보내 편지내용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을 내어 훌륭한 분들을 찾아뵙고 ‘이 일’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스무 살을 갓 넘겨 결혼한 뒤로는 세상살이에 쫓겨 [이]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 늙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일일] 듣지 못해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알고자 하는] 뜻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면 관두겠지만, 알게 되었으니 옛 사람들이 몸소 깨달은 경지에 도달해본 다음에야 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찍이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한 것도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뜻은 크지만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행히 집안의 먼지 같던 인연들도 거의 다 마쳤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여 예전에 뜻만 세웠다가 못한 것을 보상하려 하는데, 질실하게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의 허물을 날날이 드러내었으니, 이런 마음을 살펴주시리라 여깁니다.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같이 어떻게 공부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곧장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니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묻습니다.⁹

9. 「答曾侍[天遊-問書附] 大慧普覺禪師語錄, T.47, 916b-c. “開自幼年發心° 參禮知識扣問此事° 弱冠之後° 卽爲婚宦所役° 用工夫不純° 因循至今老矣° 未有所聞常自愧歎° 然而立志發願° 實不在淺淺知見之間° 以爲不悟則已° 悟則須直到古人親證處方爲大休歇之地° 此心雖未嘗一念退屈° 自覺工夫終未純一°”

편지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증천유는 진솔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이른바 ‘이 일’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늘 생활인으로서의 삶에 치여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자신을 불민해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사회생활과 가족 건사하는 일에서 좀 자유롭게 되자 미뤄두었던 ‘이 일’을 다시 들춰내고, ‘이 일’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대혜에게 간절히 가르침을 청했던 것이다.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같이 어떻게 공부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곧장 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증천유의 말은 차라리 외면하고 싶을 만치 너무 절실하다.

대혜는 증시량의 편지를 담담하게 읽어나갔다. 어려서부터 ‘이 일’에 대해 묻곤 했고, 직장생활과 가족 건사하는 일에 얽매어 있으면서도 ‘이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이제 마침내 나이 들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지도를 받겠다는 말은 너무 절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혜는 증시량의 진정성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았다. 그는 냉정을 잃지 않으며 보내온 편지를 찬찬히 살폈고 다음과 같이 답장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벼슬살이를 할 때까지 [선문의] 여러 선사들을 찾아 뵈곤 했지만, 그 중간 중간에 과거를 치르라 혼인하라 일이 많았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이기지 못해 공부에 전념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허망한 세상살이에서 온갖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니, 단 하나도 즐겁게 여길만한 것이 없음을 통감하여, 이 대사가 인연에만 온 마음을 다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출가 사문인 나의 생각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국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과거와 혼인도 세상살이에서는 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별 것 아닌 잘못을 가지고 크게 걱정하고 있으니, 오래전부터 참된 선지식을 배워 지혜가 깊어져 그런 것입니다. 그대가 큰 잘못이라고 한 것은 역대 성현들도 피하지 못한 일입니다. 단지 온갖 것이 다 헛됨을 안 것은 다 안게 아닙니다. 이 문 안쪽으로

可謂志願大而力量小也。… 閑居無他事。政在痛自鞭策以償初志。第恨未得親炙。誨耳。一生敗闕已一一呈似。必能洞照此心。望委曲提警。日用當如何做工夫。庶幾不他途。徑與本地相契也。如此話。敗闕亦不少。但方投誠自難隱逃。良可愍故至扣。

마음을 돌이켜서 지혜의 물로 찌든 때를 씻어내고 바로 발밑에서 [그런 생각일랑은] 칼로 잘라내듯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相續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도 아직 오지 않은 일도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버리고 나면, 뭔가를 하는 것도 헛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헛됩니다. 안다고 하는 것도 헛되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헛됩니다. 지나간 것과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올 것도 죄다 헛됩니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헛된 것을 다스리는 약으로 헛되다고 여기는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병이 낫고 약을 버리고 나면 아프기 전의 그냥 예전 그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아픈 사람의 상태와 다 나온 뒤의 사람의 상태를 별개로 여기게 되면 이것은 샅된 마구니의 도리이며 견해일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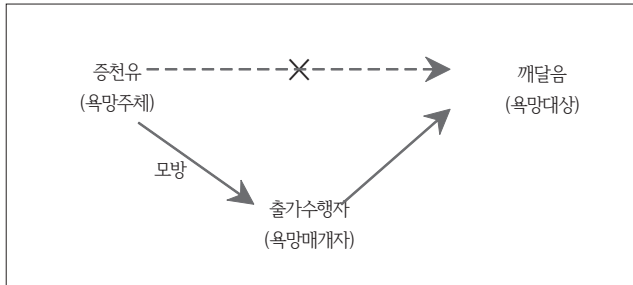
그저 다음과 같이 힘쓰십시오. [마음이] 무척 고요하다 싶을 때도 수미산과 방하착 이 두 가지 칩어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것만 착실히 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장애입니다. ... 이렇게 꾸준히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

만약 [말씀처럼] 예전의 잘못이 정말 있는 것이라면, 지금 목전에 있는 것도 모두 정말 있는 것이 됩니다. 관직도 부귀도 은혜 입은 것도 모두 정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있다면, 천당도 지옥도 있고 번뇌와 무명도 있는 것입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업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 또한 정말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제시한 온갖 수행법이라는 것들도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¹⁰

10. 『答會侍-天游-問書附』大慧普覺禪師語錄, T.47, 916c-17b. “承_レ及_レ自幼年至仕宦參禮諸大宗匠中間爲科舉婚宦所役_レ又爲惡覺惡習所勝未能純一做工夫_レ以此爲大罪_レ又能痛念無常世間種種_レ幻無一可樂_レ專心欲究此一段大事因_レ甚愜病僧意_レ然_レ爲士人仰祿爲生_レ科舉婚宦_レ世間所不能免者_レ亦非公之罪也_レ以小罪而生大怖懼_レ非無始曠大劫來承事眞善知識熏習般若種智之深_レ焉能如此_レ而公所謂大罪者_レ聖賢亦不能免_レ但知_レ幻非究竟法_レ能回心此箇門中_レ以般若智水_レ滌除垢染之穢_レ淨自居_レ從腳下去_レ一刀兩段_レ更不起相續心足矣_レ不必思前念後也_レ曰_レ幻_レ則作時亦_レ幻_レ受時亦_レ幻_レ知覺時亦_レ幻_レ迷倒時亦_レ幻_レ過去現在未來皆悉是_レ幻_レ今日知_レ非_レ則以幻藥復治幻病_レ病_レ藥除_レ依前只是舊時人_レ若別有人有法_レ則是邪魔外道見解也_レ公深思之_レ但如此崖將去_レ時時於靜勝中_レ切不得忘了須彌山放下著兩則語但從腳下著實做將去_レ已過者不須怖畏_レ亦不必思量_レ思量怖畏即障道矣_レ…若如此則久久無有不悟之理_レ…若以前所作底罪爲實則現今日前境界_レ皆爲實有_レ乃至官職富貴恩愛_レ悉皆是實_レ是實_レ則地獄天堂亦實_レ煩惱無明亦實_レ作者亦實_レ受報者亦實_レ所證底法門亦實_レ若作_レ這般見解_レ則盡未來際_レ更無人趣佛乘矣_レ三世諸佛諸代祖師_レ種種方便_レ翻爲妄語矣_レ”

적어도 여섯 번 이상 서신이 서로 오갔을 정도로 대혜와 증천유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혜는 증천유의 편지에 내포된 문제점을 간파하고 그 욕망의 근원과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어린 시절부터라고 적고 있을 정도로 불가의 깨달음에 대한 증천유의 관심과 욕망은 오래되고 끈질겼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증천유에게서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하지 않는 출가수행자의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그 모습을 모방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났다.



증천유에게 보낸 대혜의 답장에는 일반 생활인이 출가수행자의 모습을 모방하려는 욕망을 지적하고 있다. 르네 지라르의 관점을 빌리면, “세계를 고통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인간실존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부류의 인간, 곧 연장된 통과제의 상태로 살아가는 출가자들의 특정실존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반적 일반실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출가자들의 세계 포괄적인 구원론적 기회를 의미한다.”¹¹⁾ 그런데도 이를 모방하여 욕망하게 되면, 세속생활은 마지못해 하는 일,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고통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출가자를 모방하는 욕망은 깨달음과 무관한 낭만적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혜의 통찰이다.

11. 장일권, 『붓다와 회생양: 르네 지라르와 불교문화의 기원』, SFC, 2013, 280쪽.

IV. 나가는 말: 욕망을 대하는 선적 진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본질을 모방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모방적이라면 즉 모방에 의해 생겨나면 주체는 그의 모델이 소유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욕망”¹² 한다. 욕망에 대한 지라르의 설명이 프로이트의 그것과 구별되는 지점은, 욕망의 원인을 욕망주체의 외부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욕망은 본래적이고 선천적이며 자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것이 욕망주체를 유도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과 욕망이 일어나는 현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연역적인 추리도 가능해진다.

욕망에 대한 선의 대표적인 태도는 먼지론 내지는 습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 대통 신수의 시를 통해 드러나는, 거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부지런히 닦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먼지론이다. 이런 관점은 먼지도 없고 거울도 없다는 육조혜능의 시를 통해 뭔가 다른 차원으로 극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는 욕망의 실체성에 대한 부정을 통해 욕망 현상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고 만다.

욕망에 대한 선의 또 다른 태도는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수심결(修心訣)』에서 적고 있는 “돈오는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의 습기가 깊다”¹³는 표현은 중생의 현실을 직시한 설명이었다. 돈오점수(頓悟漸修) 즉 깨닫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로 지눌은 습기(習氣)를 지목했다. 습기는 욕망의 실체성 여부보다는 욕망 현상의 엄중함에 주목한 것이었다. 욕망의 존재성을 분명히 따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쩔거나 욕망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이다.

먼지론과 습기론은 둘 다 소박하고 금욕적인 욕망론이다. 굳이 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만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다. 사

12. 르네 지라르, 『문화의 기원』, 김진식 역, 기과량, 2006, 66쪽.

13. 『牧牛子修心訣』, ABC, H0068 v4, 711a23-24. “頓悟雖同佛 多生習氣深”

된 마음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일어나면 부지런히 다스리고 제어해야 한다는 데에야 이견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 욕망과 관련한 먼지론과 습기론적 태도는 금욕주의 혹은 적정주의(寂靜主義)로 흐를 수 있다. 먼지가 쌓이거나 버릇이 나타나는 현상을 늘 관찰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지도 없고 거울도 없다는 육조혜능의 시구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선종은 육조 혜능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먼지론과 습기론이 아닌 욕망에 대한 좀 다른 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것은 먼지론과 습기론에 대한 반대나 부정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아시아 선에서는 먼지론이나 습기론과 좀 다른 맥락에서 육조혜능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웠다. 그것은 먼지론이나 욕망론으로 정리되지 않는 욕망에 대한 선의 또 다른 태도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지론과 습기론에 바탕으로 둔 선종의 대표적인 수행 전통은 묵조선(默照禪)으로 통칭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 선종사에서 묵조선이라고 하면 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이나 조동선(曹洞禪) 같은 개념을 연상하게 되지만, 어쩌면 선종의 형성 이전부터 있었던 수행법이었던 같다. 내면 관조를 주된 수행법으로 하는 묵조선은 진중하고 경건하게 욕망 현상을 제어한다. “묵묵히 말을 잊으니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네[默默忘言 昭昭現前].”¹⁴로 시작되는 묵조명(默照銘)의 첫 구절은 묵조선이 욕망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선종사에서 묵조선 경향과 대립 관계로 설명되는 수행 전통이 바로 간화선이다. 간화선이 묵조선과 상반된다거나 서로 갈등을 이루었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욕망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그러한데, 간화선에서는 묵조선에서 보이는 금욕주의적이거나 적정주의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간화선에서는 욕망 현상의 실재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태도를 두고 욕망을

14. 「默照銘」, 『宏智禪師廣錄』, T.48, 0101a.

긍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선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욕망의 긍정으로 잘못 읽어서 이른바 막행막식하는 출가자의 모습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다. 욕망 현상의 실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등의 태도는 되레 욕망의 존재성을 강화하고 욕망에 대한 집착을 강화한다. 마음의 본래 완결성과 순수성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욕망 현상은 나타났다가도 제풀에 꺾여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욕망이 있건 없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간화선의 관점이다.

인도전통의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의 대전제를 고(苦)로 설정했다. 그리고 고통의 삶을 윤회전생 하도록 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욕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수행의 과정과 목표는 늘 욕망의 억제이거나 욕망에서 벗어남이었다. 이에 비해 선에서는 그 자리에 본래성불(本來成佛)을 두었다. 그래서 선 수행의 목표는 회복이나 귀향의 코드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제삼자의 중개에 의해 욕망하므로, 이 제삼자는 욕망의 중개자이자 전범이 되며, 그 욕망은 낭만주의자가 믿는 것처럼 '자발적 욕망'이 아니라 '비자발적 욕망'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인 비자발성, 모방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애써 주장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을 지라르 식으로 말하자면 '낭만적 거짓'의 태도라 할 수 있으며, 몇 몇 뛰어난 소설처럼 욕망의 비자발성을 인정하고서 그 실상을 보여주는 태도는 '소설적 진실'의 태도라 할 수 있다.¹⁵

보이지 않는 것은 본래 나약한 것일까.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나약한 것일까. 아무리 곧추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마음은, 조바심치고 불안하고 미심쩍어서, 늘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따라해야만 겨우 편안해진다.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의 속내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겉으로 보이는 담대함이나 편안함만큼이나 속으로는 조바심치고 불안해하는지도 모른다. 중생

15.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1992, 494쪽 역사 해제 중에서.

이 본래 그러하고, 변래 그러하니 중생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일 텐데, 간화선은 그런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더 이상 감출 것도 변명할 것도 없게 한다. 그래서 선이 내지르는 말길은 늘 가혹하거나 모호하다.

대혜에게 편지를 보낸 온 사람들 중 몇몇은 욕망이 무거웠고, 그것들은 대개 모방 욕망이었다. 그들의 욕망 형태는, 먼저 뭔가를 강하게 욕망하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매개자의 모습을 어디선가 보거나 듣고 배워서 그 매개자의 걸모습을 모방하고서는, 그 모방하는 과정을 욕망이 성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혜는 편지글 속에서 그런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런 과정은 욕망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성취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이라서, 차라리 따라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냉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宏智禪師廣錄』, T.48.
『大乘起信論』, ABC, K0616 v17.
『大慧普覺禪師語錄』, T.47.
『牧牛子修心訣』, ABC, H0068 v4.
-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이론과 새로운 심리학」, 『불어불문학연구』 107, 2016.
대혜종고, 김탄허 역, 『서장』, 교림, 1994.
_____, 『서장』, 智象 주해, 불광출판부, 1998.
_____, 『서장』, 巨擘 역주, 수덕사승가대학, 1998.
_____, 『서장: 대혜스님의 선수행 편지 모음집』, 전재강 역주, 운주사, 2004.
_____, 『禪 스승의 편지』, 원순 역, 범공양, 2010.
_____, 『대혜서장: 참선은 이런 것이다』, 김태완 역주, 침묵의향기, 2018.
-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2.
_____, 『문화의 기원』, 김진석 역, 기파랑, 2006.
_____,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1992.
- 이찬수, 「모방 욕망, 소수자 재생산과 그 극복의 동력: 르네 지라르의 폭력 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8-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장일권, 『붓다와 희생양: 르네 지라르와 불교문화의 기원』, SFC, 2013.

Abstract

Romantic Lie and Chan/Zen Buddhist Truth in Shuzhang

Park, Jae-hyeon (Tongmy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In this thesis, academic boundaries such as philosophy, literature, religion, and Buddhism are broken. Using René Girard (1923-2015)'s theory of desire as an analysis tool, I tried a new reading of the *Shuzhang* 書狀 (The Letters of Chan Master *Dahui* 大慧). Here, the letters sent and received with three people: Sūn yǔ 孫與, Zōngzhí gé 宗直閣, and Céng tiānyóu 曾天遊 were intensively analyzed with the theory of desire. In his letter, he revealed that there is a desire to be recognized for the view and state of Chan, the desire to suppress or shake off emotions, and the desire to live like a monk. And he explained that all these desires are nothing more than mimetic desires, and have nothing to do with Chan or enlightenment.

Keywords: *Dahui Zonggao* 大慧宗杲, René Girard, Mimetic Desire, Romantic lie, *Shuzhang* 書狀, Chan Buddhism

논문 투고일 : 2020년 09월 26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10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0월 28일